

# 과학책과 과학교육

박성래

외국어대교수 · 과학사

한때 '호킹 현상'이 이 땅을 휩쓸고 지난 적이 있다. 스티븐 호킹의 저서와 그에 관한 책들이 여럿 나오고, 그 가운데 하나인 「시간의 역사」는 외국에서 베스트셀러였다는 여세를 몰아 우리나라에서도 전례없는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세계의 일류 과학자가 쓴 과학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른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과학책이 읽히는 시대가 찾아온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다. 바로 그런 기분 때문에 한때 과학책이 꼬리를 물고 출판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뿐. 과학책은 지금도 여전히 팔리지도 않고 읽히지도 않는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생각해 보면 이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사람들은 과학책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호킹에 혹했을 뿐'이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금쯤 세계가 알게 된 유명한 사실이지만, 스티븐 호킹은 올해 만 50세가 되는 영국의 천체물리학자다. 그러나 그가 유명한 것은 반드시 그의 학문적 업적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가 경험하고 있는 '루 게릭병'이라는 근육무력증 때문이다. 거의 전신이 마비상태에 빠진 그는 기계의자에 앉아 특수컴퓨터의 도움으로 겨우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정상적일 때 그에게 세 아이를 낳아준 그의 아내 제인은 그가 우리나라에서 한창 유명해질 때 드디어 그와 이혼하고 말았다.

'호킹현상'을 통해, 우리나라의 독자들은 과학책을 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소설 또는 소설 같은 이야기에만 열중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호킹의 책을 사다가 몇 페이지 읽지 못하고 책장에 꽂아두고 말았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의 인생은 한 편의 대단한 드라마지만, 그의 책은 그리 극적이지도 그리 재미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와 무관하지 않은 현상이 바로 소설 「동의보감」이다. 선조때의 명의 허준과 그가 쓴 한의학의 고전 「동의보감」은 이름만은 꽤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소설로 바뀌기까지는 한의사와 과학사 학자 이외의 거의 아무에게도 그것은 별 관심거리가 아니었다. 아마 똑같은 내용을 '허준'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냈더라면 지금 같은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을지 모른다. 실제로는 허준의 일생을 그린 소설이면서도 이름은 그의 대표작 「동의보감」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 영향으로 보이는 책들이 「토정비결」 「목민심서」 등으로 우리의 옛 책 이름을 달고 소설로 나오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역시 관련있는 우리 둘레의 현상으로는 그래도 신과학 또는 疑似 과학 관계서가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이 또한 과학은 과학으로 읽히기보다 소설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방증해 준다. 우리 독서계에 보이는 이런 현상은 과학을 대중에게 보급하는 부분적 효과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왜곡하는 악영향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일까? 그 원인은 물론 과학 그 자체의 특성과 관계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에게 특히 그런 현상이 심한 것은 학교에서의 과학교육이 대단히 잘못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도대체 학교 교육은 과학을 재미는커녕 아무 뜻도 모르고 외워둬야 하는 쓰디쓴 공부, 즉 苦學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차라리 학교에서의 과학 교육 내용을 소설식으로 바꿔 과학에 대한 흥미나마 유지시켜 주는 편이 나라의 장래에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닐까 생각될 지경이다.

뉴스	2	한글로마자 표기법 남북통일안 마련 · 외
표지인물	4	한국학자로 영인에 바친 외길 한평생 아세아문화사 이창세 사장
에세이	6	한여름의 내 글쓰기를 위한 책임기 —한승원 읽지 않으면 쓰기도 어렵다
특집	8	책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여름여행 길 나서는 이들의 든든한 동반자 여행안내서
	9	취미생활 대중화 따라 '레저문학' 붐 바둑 낚시 등산 등 소재로 한 에세이와 소설집
	10	짧지만 경쾌한 재미 선사하는 콩트집 기성작가 외에 아마추어문인들 작품집도 상당수
	11	만화경같은 대중문화의 뒤안을 엿본다 방송 영화 광고 등의 이면서 파헤친
서평	12	오주환 「영국근대사회연구」 —홍치모 질송 「존재란 무엇인가」 —장 옥 13 이두호 외 「국민의료보장론」 —이우천 14 구범모 「2000년대와 한국의 선택」 —권영진 서영진 「지방자치와 지역활성화」 —지병문 15 이원섭 「섬」 —장경렬
출판화제	16	오늘 우리에게 '美國'은 무엇인가 미국 관련도서 출판실태
세미나	18	개방화시대의 출판발전 전략 제14회 출판경영자세미나 지상중계
이 책 그 사람	20	「눈앞에 있어도 그리운 여자」 낸 민용태교수 「너도밤나무 나도밤나무」 낸 윤후명씨 21 「에세이 의료한국사」 낸 허정교수 스위프트의 「하인」 번역한 류연희씨
해외출판	22	프랑스가 구상하는 유럽의 안전보장 —이봉호
세계의 책	24	지구 자멸은 막을 수 있는가 —배병삼
	26	독자서평
	28	화제의 신간
	30	신간안내
	38	200자 안내
	40	신간목록
	48	프리즘/재미있는 책 이야기/정기구독안내